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진관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내면의식에 나타난 조형성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박은혜

# 내면의식에 나타난 조형성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진관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박은혜

# 인 준 서

박은혜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 한번쯤은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물음에는 명확한 답안이 없으므로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처럼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인간이라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호기심이자 욕구인 동시에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또한 다양한 경험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확인하면서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자신을 인식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자아가 불완전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불안과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감정은 인간에게 있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본인의 삶과 주변에서도 끊임없이 등장하며 의식을 자극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자신뿐 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본인의 작품을 통하여 자신만의 언어로 시각적 이미지를 획득하는 그 과정과 의미를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의 표현이 자신의 내적갈등에서 벗어나 치유와 회복의 염원으로 연결되는 의식의 흐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예술은 삶의 경험과 거기서 비롯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작용해 왔으며 예술가의 내면의식을 통하여 고유한 표현방법이나 언어로써 형상화 되고 표현되어져 왔다. 이렇게 표출된 시각적 이미지는 인간의 내재된 가능성을 일깨워주고 삶을 재조명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준다.

본인의 작품에서 내면의식의 표출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화면에 나타나는 형태, 색채, 공간 등은 자신의 감정이나 의식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식의 표출로 나타나는 종교의 이미지는 신 혹은 구원의 상징으

로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한 공간에 자신의 갈등이 투영된 풍경과 인물을 배치함으로써 대비를 통한 주제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징성은 자신의 의식과 감정을 대상에 적극적으로 대입시키고 이러한 의식을 표면화시킴으로써 자신의 내면세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또한 대상의 관찰을 통하여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생각을 직 · 간접적으로 나타내는데 중요한 표현요소인 색채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인에 작품에 내재된 색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본인의 불안정한 의식에 근거하여 종교의 이미지를 통한 조형적 표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 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현재의 자신의 돌아보고 자신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설정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3
1. 작품 형성의 이론적 배경 .....	3
1) 인간의 존재와 불안 .....	3
2) 표현주의와 심리적 관계 .....	6
2. 작품분석 .....	11
1) 기독교 이미지로 나타난 구원의 상징 .....	11
2) 감정표현으로서의 색채 .....	16
III. 결론 .....	20
작품해설 .....	22
참고도판	
참고문헌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1】 신명기 32:4, 198x13cm, 장지에 분채, 2010 .....	22
【작품2】 시편 121:5-8, 162.3x130.3, 장지에 분채, 2010 .....	24
【작품3】 시편 34:15-19, 260.6x324.6cm , 장지에 분채, 목탄, 2010 .....	26
【작품4】 누가 복음 3:3-6,8, 162.3x130.3cm, 장지에 분채, 2010 .....	28
【작품5】 마가복음 28:19, 260.6x324.6cm 장지에 분채, 2010 .....	30
【작품6】 시편 121:5-8, 130.3x162.3cm, 장지에 분채, 2010 .....	32
【작품7】 시편 23:1-4, 96x130cm, 장지에 분채, 2010 .....	34
【작품8】 고린도전서 11:23-26, 91.5x73cm, 장지에 분채, 2010 .....	36
【작품9】 마태복음 18:18, 91x117cm, 장지에 분채, 2009 .....	38

# I. 서론

현대문명의 발달에 따라 문화적 이기주의와 기계화된 문명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각자가 나가갈 방향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사회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그 의미가 축소되었고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측면 또한 경시되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간은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과 내면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자기에 대한 인식은 본래 인간의 기본욕구이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동시에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재정립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술가에게 있어서 자아에 대한 관심은 특별하다. 예술이란 자신의 감정과 존재를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아성찰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아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아가 자신을 끊임없이 찾아가야 하는 불확정적인 존재임을 느끼게 되고 그 순간 불안을 느끼며 더 나아가 고독과 절망하게 된다.

본 연구자는 본인 뿐 만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자신만의 시각과 언어로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작품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문제의 갈등상황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보았다. 따라서 본인의 내면의식이 종교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어떻게 상징적으로 표현 되는지를 연구해보고, 그 의미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자신에게 진실 된 작품을 하는 바탕을 다지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I 장에서는 인간의 자아에 대한 관심은 기본적인 욕구이면서 예술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임을 설명하고 이러한 자아는 불확정한 존재이어서 인간에게 불안함을 유발한다고 언급하였다. 이것을 인간존재에 대해 사고의 틀을 제시해준 실존철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본인의 작품 창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불안에 대한 감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예술과 관련한 이론적 근거를 얻기 위하여 표현주의에 대해 연구해 볼 것이며, 표현주의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전개양상에 대해 기술하면서 대표적인 두 작가를 그 예로 설명할 것이다. 또한 내부세계를 작품으로 표출하고자 한 표현주의자들의 정신적인 측면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면서 진정한 예술의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II 장에서는 본인의 내면에 나타난 불안의식을 ‘종교를 통한 구원’이라는 주제와 연관시켜 알아보고, 기독교의 이미지와 불안정한 자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조형성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면세계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집적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색채가 본인의 작품에 있어 어떠한 심리적 작용으로 나타나며 시각적으로 표출되는지를 작품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탐색하면서 진정한 자기 모습을 찾기 위한 흔적들을 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적 갈등을 극복하고 삶의 희망을 향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하는 바람이다.

## II. 본 론

### 1. 작품형성의 이론적 배경

#### 1) 인간의 존재와 불안

우리는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한다.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지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각, 즉 자신이 알고 있는 마음을 의식이라고 하며 자아는 모든 의식의 내용과 연계되어 있으면서 의식영역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자아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예술가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작품활동에 있어서 자신의 의식 깊숙이 들어가 자아의 보편적인 지각을 넘어 내면을 통찰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면서 중요한 단계인 것이다. 뚜렷한 의도 없이 무의식에 의존해 작품을 창작한 후 그 화면과 대면했을 때 우리는 자신 즉 의식의 심연에 가라앉아 있던 자아와 대면하게 된다. 예술은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 일뿐만이 아니라 작가 자신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자신을 찾아가는 자아 탐구의 장이기도 하다.

이렇듯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는데 근원적인 자아는 무의식의 내면세계를 살펴 이와 관계 맺으며 적응함과 동시에 외부세계와도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생활하며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현실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이지만 사회에서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하

면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이때 갈등과 대립이 생기는데 이러한 불안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기보호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며 극복에 실패시 비관하거나 좌절하게 된다. 이러한 상실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든 가능성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이러한 자아의 불확실성은 인간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한 끝없는 의문을 품게 한다.<sup>1)</sup> 이러한 인간 존재에 대한 사유는 실존이라는 철학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된다.

인간 존재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자유에서 오는 불안 및 소외감을 스스로 떠맡고 보다 성숙한 존재로서 자신에 대해 물음을 던지면서 사고의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실존철학<sup>2)</sup>이었다. 개개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주장한 실존철학은 19C 사회전반에 퍼져있던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주의 사상에 대한 반동으로 탄생하게 되었으며, 실존주의의 이론은 키에르케고르(C.Kierkegaard 1813-1855)에 의해 처음 정립 되면서 이후 하이데거(M.Heidegger 1889-1885), 야스퍼스(K.T.Jaspers 1883-1969)에 의해 발전하게 되었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 개개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시대정신의 보편적 이론체계에 담으려고 한 것은 무모한 것이며 인간의 사유체계는 보편화 될 수 있지만 삶의 체계만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렇듯 인간 이성에만 의존 했던 사상이 팽배했던 시대에서 실존을 역설하며 인간의 실존함을 주체적으로 보았다. 여기서 주체적으로 사고함은 인간 자신을 보편적인 존재가 아닌 개별적 존재로 스스로 인식하고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실존하는 인간이며, 이론적 체계와 절대적 개념의 사고를 극복하고 자신의 실

---

1) 시종숙, 「자아의 실존적 사유를 통한 내면표현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8, p.5

2) 실존주의란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주체적 존재성을 강조하는 철학 및 문예사조이다. 19세기 합리주의적 관념론이나 실증주의에 반대하여 나타났으며, 실존이라 함은 본질에 앞선 즉 본질존재가 아니라 '현실존재'라는 것을 뜻한다.

존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실존주의는 현재세계에서 인간의 존재, 그 개인에 대한 인간존재의 의미를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존주의는 인간의 실존이 인간의 본질에 앞선다고 주장한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인간은 이러해야 한다는 말이 부재한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본래 본성이란 없고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불확실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이렇게 불확실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여 생활하는데는 커다란 공포와 불안이 동반된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러한 불안에 대해 불안의 대상은 ‘무’이며 ‘불안’과 ‘무’는 언제나 서로를 대응한다. 여기서 ‘무’는 불안을 낳는다고 하였다.<sup>3)</sup> 우주의 근원이 무에서 시작되었듯이, 인간의 원류를 추적해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존재론적 무’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원초적 ‘무’에서 불안이 비롯되며 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불안이 생기기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불안은 본질적인 것이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는 사라지지 않고 인간을 고민하게 한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칙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는데 인간은 이러한 불안한 상황으로 인해 무기력해지며 좌절하게 된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초월한 존재, 즉 신에게 의지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처로 불안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내면의 안정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실존주의는 모든 결정론에 대한 거부와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인간의 실존은 주체적이기 때문에 나름의 해결방식을 가지고 한계를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본

---

3) M. Heidegger,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이기상 역, 서울 서광사, 1995, p.16

인도 작품을 통해서 내면의식에 자리잡고 있는 불안이란 감정을 종교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실패하더라도 이겨내려고 하는 적극적 의지를 작품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 2) 표현주의와 심리적 관계

예술에서 표현이라고 함은 내적 존재의 표출작용이며, 여기서 내적 존재라고 함은 우리의 인식에서 대상과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것이 표출될 때는 그 자체로 자유로운 것이지만 여기에는 ‘자기목적성’이라는 개념이 따라와야 한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예술 활동은 감정표출의 일종이다. 그렇다고 해서 표출된 모든 것이 예술작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표출작용이 내적 감성을 자유로이 표출하고 이것을 더욱 고양함으로서 자기의 심적 상태를 타인에게 투사될 때에만 예술적 활동으로서 창조적 성격을 가지 수 있기 때문이다.<sup>4)</sup>

이것은 예술이 단순히 대상의 재현이 아닌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 특히 감정이나 정서적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관람자로 하여금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 냈을 때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예술의 정의가 바로 표현주의 예술이다.

표현주의라는 명칭은 베를린의 화상 카씨러(P. Cassirer 1871-1926)가 인상파에 반대되는 새로운 경향으로 뭉크(E. Munch 1863-1944)의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표현적이라고 한 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sup>5)</sup> 표현주의는 독일인에 의해 처음 창안된 것은 아니었으나 제 1차 세계대전 전후에 독일을 중심으로 가장

---

4) 볼프 하르트 행크만, 「미학사전」, 김수진역, 도서출판 애경, 1999, p352

5) 「독일의 20세기 형상회화」, 김재원 저, 한국 학술정보, 2007, p.30

활발히 전개되고 이론적으로 체계화 되었다,

19c말 유럽사회는 과학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표면적으로는 안정된 듯한 분위기였지만 그 내면에는 그 당시의 주지주의(intellectualism)<sup>6)</sup>나 실증주의(positivism)<sup>7)</sup> 같은 이성을 중시하며 인간을 소외 시키는 사조에 대한 반발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룬 독일에서는 물질만능주의와 가치관의 변화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의 급격한 변화는 이전의 가치관의 붕괴로 이어지고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정립해야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것이 표현주의가 등장한 시대적 배경 이다. 또한 미술사적 영역에서 표현주의는 세계의 표면적인 현상을 중요하게 다루는 인상파의 대한 반동으로서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감동을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하며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것은 종교적인 것으로 혹은 사회질서에 대한 반발로, 자신의 감정표현을 통하여 강렬하고 자극적인 상황을 묘사하였고 대부분 불만, 갈망, 깊은 회의 등으로써 표출 되었다.<sup>8)</sup>

이 때 독일에서는 두 개의 표현주의 그룹이 결성되었는데, 그것은 곧 ‘다리’ (Brucke)<sup>9)</sup>와 ‘청기사’ (Blaue Reiter)<sup>10)</sup>이다. 여기서 다리파의 작가들

6) 지성 또는 이성이 의지나 감정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철학상의 입장이다.

7) 19세기 후반 서유럽에서 나타난 철학적 경향으로 형이상학적 사변을 배격하고 사실 그 자체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강조하였다.

8) 김의영, 「독일 표현주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2, p.17

9) 헤켈, 에른스트 루드비히 키르히너, 슈미트 로트라프 등이 창설한 화가단체이다.

특별히 명확한 강령(綱領)은 없었지만 인상주의적인 체체선(분리파)에 반대하고, 나아가 사회를 비판한다는 의향 하에 자신해서 노동자촌에서 생활, 공동적 제작활동에 의해 표현주의 운동의 단서(端緒)의 구실을 수행했다. 관화의 이차원적 평면과 백(白)·흑(黑)의 대비(對比) 속에서 힘찬 정신표현의 가능성을 추구 하였다, 그것을 독자적 예술범주로 높인 의의는 크다.

10) 다리파와 함께 독일 표현주의의 주요한 유파로서, 이 명칭은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와 마르크(Franz Marc)가 1912년에 피퍼(Piper) 서점에서

은 전통적 비례원칙이나 원근법을 무시한 왜곡된 형태와 단순화된 화면구성, 개개의 대상들을 상호 구분짓는 강렬하고 즉흥적인 필치의 검은 윤곽선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의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반영하여 내면적 불안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 하나의 그룹 ‘청기사’ 분류의 작가들은 당시 유럽의 많은 지식인들이 고뇌하고 있던 인간존재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써 본래적인 것으로의 회귀를 추구하였고 그에 대한 하나의 조형 예술적 방안으로의 원초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리고 그들은 강렬한 색채와 단순화된 형태의 풍경화나 추상화를 주로 제작하였고 삶의 밝고 아름다운 측면을 형상화 하였으며 가시 되지 않는 내적 정서의 리듬을 표현하였다. 또한 즉흥이나 인상 등의 강렬한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회화적 표현의 한계에 도전하는 끝없는 실험적 작품을 선보였다.<sup>11)</sup>

이와 같이 독일에서 일어난 표현주의 작가들의 활동은 회화의 역할이 내면성 전달과 작품에서 표현성 강화로 진행됨을 보여주며 독일 뿐 만이 아니라 미술이 20C로의 전환을 맞이 하였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개인의 내적 감정 전달을 중요시한 표현주의의 대표적인 작가로 에밀 놀데(Emil Noede 1867-1956)와 키르히너(Ernst Ludwig Kirchner 1880-1938)를 꼽을 수 있다. 우선 놀데의 회화방식을 살펴보면 그는 추상화, 종교적 회화, 풍경 등을 통해 사회적인 문제 보다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하였으며 현실을 초월하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그 표현의 소재로 삼았다. 그의 풍경화 작업을 살펴보면 놀데의 심리적 표현이 극대화 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도판2] 「오트만의 바다」에서 표현된 넓고 두텁게 물결치듯

---

간행한 잡지 《청기사》에서 유래됐다. 이 과의 경향은 색채에 상징적인 의미를 주고, 독일 고대의 낭만적 심성을 화면에 형상화하는 것으로, 제작자의 내면 표현을 존중함으로써 추상화로의 길을 가게 된다.

11) 「독일의 20세기 형상 회화」, 김재원 역. 한국학술정보, 2007, p.34

가해진 붓터치는 작가 자신의 격앙된 심리적 동요를 대변하고 감상자로 하여금 긴장을 유발 한다. 화면에 나타난 하늘과 바다의 경계는 무너지고 단순히 자연의 풍경이 아닌 작가의 내면세계로 변형 된다. 이렇듯 풍경은 더 이상 인간의 영역에 남아있지 않고 시각적 차원을 넘어서 심리적 상태를 담아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승격되는 것이다. 놀테의 회화에서 나타나듯이 대상에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성을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표현주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신표현주의<sup>12)</sup> 회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키르히너의 작품에서 표현주의적 요소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키르히너의 작품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차갑고 불안하며 소외된 인물과 풍경이 묘사되어 진다. 이것은 키르히너가 도시에서 경험한 불안정한 내면의식이 작품에 표출 된 것이다. 그의 작품에서 드러난 불안의 요소는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다. 작가가 거주하였던 베를린은 당시 혼탁하며 환락적 분위기의 도시였으며, 동시에 빈곤이 공존하는 자본주의의 초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키르히너는 경제공황과 자본주의경제의 중심이었던 베를린 사회에서의 ‘인간소외’ 현상과 ‘윤리적 타락’ 을 자신의 시각으로 과장되게 표현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내면의 불안이 맞닥들이면서 총체적 위기 상황에 처한 인간을 불안정하게 표현하는 것은 작가 자신의 내적 필요성에 의한 충동이며 인간심리에 관심이 컸던 표현주의자들의 본능적인 감성에 충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성을 맺고 있는 대표작으로 [도판1] 「거리의 여자들」을 들 수 있다. 작품 속 인물들은 검은색 옷을 입은 우아한 여성들로 보이지만 사실상 당시 베를린 거리에 넘쳐나던 창녀들을 묘사한 것이라고 한다. 인물의 묘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손과 발의

---

12) 신표현주의는 1970년대 회화의 주류를 이루었던 초연하고 내적이며 지나치게 지적이던 추상미술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났다. 형상성과 예술성에 대한 회복을 추구한 신표현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절정을 알리는 양식이다.

뾰족한 모양과 코와 턱, 모자의 각진 형상들이다. 이것은 화면에서 신경질적인 느낌을 강하게 주며 자극적으로 다가온다. 또한 노란색의 배경과 뒷면에 배치된 인물의 푸른색의상은 강렬한 대비를 이루면서 작가 내면에 흐르는 불안감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키르히너는 표현주의에서 흔히 나타나는 원색적이고 거친 색채의 표현으로 작품의 분위기를 구성하며 전체적으로 색채의 대비를 통해 심리적인 상황을 연출한다.

놀데와 키르히너의 작품을 살펴보면서 표현주의자들은 특유의 자신만의 감성을 심리적이며 순수하게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 그리는 행위는 본능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대상에서 느끼는 감정 주관적 시각에 의해 고스란히 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재현에서 멀어지고 인간의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체험적이고 주관적으로 감상자의 감정에 직접적인 공감을 주며 본질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바로 표현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2. 작품 분석

### 1) 기독교 이미지로 나타난 구원의 상징

슬픔, 분노, 기쁨 등과 같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 불안은 삶을 살아가는데 항상 주위에 잠복해 있으며, 본인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듯 하다.

이러한 의식은 본인의 작품과 대면하게 될 때, 더욱 확연히 나타난다. 왜냐하면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이 작품을 통해 드러나며, 그것을 통해 진실한 자신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 장에서 언급 했듯이 표현주의 작가들은 작품에 자신의 내면의식을 담아 표출하였는데 바꾸어 말하면 완성된 작품을 통해 자신을 이해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이렇듯 본인의 작품을 통해 잠재되어 있는 내면의식을 확인하고 탐구한다.

완성된 작품을 살펴보면 정체불명의 불안의식은 다양한 형태와 대상으로 계속 변형되며 화면에 자리잡고 있다. 삶과 작품 전반에 걸쳐 드러난 이러한 불안의 요소는 본인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막연히 짐작 되고 어느 순간 이러한 감정의 근원이 무엇이며 어디서 오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관심은 본인의 작품을 형성하는 배경이며 끊임없이 앞으로 연구해 나가야할 대상인 것이다.

어릴적 기억을 떠올려 보면 항상 알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성장 후에도 이러한 불안은 자신 안에 혹은 주위에 항상 서성이고 있는 듯하다. 이것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본래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이러한 불안은 너무나 막연하고 정확한 대상이 없다는 사실이 더욱 두려움을 유발 한다.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극복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 한다.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에 대해 본질적인 것이며, 정신은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만 결국에는 불안에 끌려 다니게 된다고 하면서 어느 누구,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았을 때 궁극적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의지할 곳이 없다는 사실에 인간은 고독해지고 더욱 불안해 진다고 말하였다. 인간은 혼자라는 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한없이 작아지고 나약해진다. 그리고 본질적 불안과 삶의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끊임없이 위협당하고 홀로 대처해야 하는 불안한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본질적인 불안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불가능하지만 종교를 통해 초월적 실재에 의지하며 홀로 남겨진 존재가 아니라는 심리적 안정을 얻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종교는 인간이 고통에 대처해온 가장 두드러진 방법이며, 불합리한 상황에서 정서적 안정을 찾기 위한 대안책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도 존재와 삶의 불안을 종교를 통하여 심리적 안정을 찾고자 하였으며 억압받은 심리를 표출하거나 불안한 자아의 이미지를 나타냄으로써 구원의식을 표현하였다.

구원은 본인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의식을 종교적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 하였다. 고통받는 자아와 신, 어둠과 빛이라는 상징적 대립을 통해 불안의식과 구원이라는 주제를 극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였고 심리적 색채와 형태로 이를 구체화 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뜻하는 상징은 사물을 지시하고 사실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더욱 심층적인 심리적 과정인 관념들의 형상화 혹은 개념 작용을 한다.<sup>13)</sup>

---

13) 수잔. K. 행거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승훈 역, 서울:고려원, 1982, p.112

작품에서 기독교 이미지로 나타난 상징물 또한 대상을 지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다른 대상을 나타내기 위한 관념적 표현인 것이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로 나타난 구원의 이미지는 성당내부의 스테인드글라스, 세례, 고해성사, 성찬의식을 통하여 나타난다.

[작품1] 「신명기 32:4」을 살펴보면 어두운 성당 내부의 하단 공간에는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고통받는 인물들로 배치되어 있고 상단 중앙에 위치한 스테인드글라스에 빛이 투과되어 거대한 에너지가 분출하듯 쏟아지는 형상을 표현하였다. 여기서 빛은 비가시적인 형이하학적으로서의 빛이 아니라 신을 상징하며 구원의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빛의 표현은 예술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성스러움과 인간의 내밀한 정신세계를 투영하는 대상으로 표현되어져 왔다. 본래 빛은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없다. 하지만 공간에서 분명히 존재하며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작용하여 내적 신비인 하나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작품 내에서 이러한 무형의 빛은 스테인드글라스의 색면을 투과함으로써 형형색색(形形色色)으로 그 존재를 드러내며 내면의 상징인 어두운 성당의 공간을 밝혀주는 성스러운 빛으로써 화면에 드러나게 된다. 종교적 예술양식인 스테인드글라스를 매개체로 이용하여 빛의 상징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빛이 내면과 연결되어 구원으로 나아가고자하는 염원 또는 희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빛의 상징성은 [작품5] 「마가복음 28:19」에서 그 대상을 조금 달리 한다. 여기서 나타난 빛은 불안으로 내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신에게 구원을 호소하는 청원으로써 표현 된다. 하지만 천장에 분출하듯 치솟는 빛을 가로막는 먹구름은 신의 관계와 소통을 단절시킨다. 이러한 분리는 자아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으며 화면 전체는 격정적인 불안으로 휩싸이게 된다. 일렁이는 물의 이미지와 대비 되는 색채의 사용은 이러한 감정을 뒷받침해 주는 요소로써

작용한다.

이러한 내면의 상징적 의미로서의 종교적 이미지는 [작품4] 「누가 복음 3:3-6,8」, [작품8] 「고린도전서11:23-26」, [작품9] 「마태복음18:18」에서도 나타난다. 이렇게 세 작품을 따로 분류하여 설명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기독교적 이미지는 본인의 내면의식을 표출 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써 그 의미가 축소되어 나타났지만 여기서 분류한 세 작품은 종교의 대표적인 관례나 의식으로 작품 내용을 설명하고자 할 때 그 의미가 중요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선 [작품 4]에서 나타난 세례는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물을 이용한 종교적 행위이다. 어원적으로는 ‘물에 잠그다’ · ‘적시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리스어 baptisma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물에 씻는 의식을 거친 후 교회내 공동체의 정식 일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것은 표면적인 세례의 정의이고 진정한 세례의 의미는 이전의 불완전한 삶을 씻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작품내의 세례의 이미지는 이러한 정신적인 재생을 통해 내적 갈등으로 억눌렀던 자아가 회복되고자 하는 소망을 상징한다. 그리고 삶 전체에서 의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문제에서 해방되며 자신이 지향하는 본질적인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한 의식(儀式)인 것이다. 하지만 화면에 드리우는 불안한 분위기는 여전히 갈등상황임을 나타낸다. 본인의 의식에는 구원의 바람이 간절하게 나타나지만 배경으로 나타난 물과 하늘은 구불거리는 곡선으로 표현되면서 신의 손길이 아직 닿지 않은 불안한 내면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구원에 이르기 전인 갈등상황에 대한 표현은 대다수의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구원의 상징, 즉 신을 나타내는 기독교적 이미지와 내적 혼란을 겪고 있는 자아의 이미지를 한 공간에 배치시킴으로써 구원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음을 표현 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작품 8]에서도 나타난다. 이 작품은 세 가지 화면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가운데는 예수의 형

상을 표현하고 양 측면에 기독교 의식을 상징하는 성배가 자리잡고 있다. 성배란 예수 최후의 만찬 때 쓰였던 포도주를 담은 잔(盞)을 의미한다. 성서에서는 이러한 포도주를 예수 자신의 피라고 언급하였으며, 기독교 의식(儀式)에서 포도주를 나누어 먹는 행위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품에 나타난 성배는 이러한 기독교의 성서에 근거하여 구원의 상징으로 드러난다. 양측면의 물과 포도주가 흐르는 형상은 성경 ‘요한복음 2:1-12’에 근거하여 표현하였다. 이 구절을 살펴보면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일화가 쓰여 있는데 이것은 예수가 기적을 행하였음을 의미하며 인간을 초월한 실재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러한 언급은 본인에게 커다란 의미로 작용하였으며 자신이 해결 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를 극복 할 수 있게 도와 줄 것이라는 희망으로 다가왔다.

이와 같이 기독교적 이미지인 세례와 성찬의식은 각각 정의나 형식은 달리 하지만 그 안에 내포된 의미는 공통적으로 ‘구원’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원은 본인의 작품에서도 상징으로서 작용하며 신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로도 표현된다.

위에서 언급함과 같이 아직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갈등상황은 작품내에 항상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신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배치시킴으로서 구원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하지만 [작품 9]에서 나타난 이미지는 이러한 구원에 대한 희망이 없는 공간으로 표현된다. 빛은 신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로 쓰였다고 앞에 언급한바 있다. [작품 9]에 나타나는 공간은 한줌의 빛도 들어오지 않으며 겨우 인물의 형태를 가늠 할 수 밖에 없는 어두컴컴한 내부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화면에서 이분할로 공간을 나누어 한 쪽에는 고통스러워하는 인물이 배치시키고 다른 한쪽에는 의자만 덩그러니 있을 뿐 어떠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상황은 자

신을 투영한 작품 속 인물이 내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사제 혹은 신의 부재로 소통 불능인 상태이며, 정적과 혼돈의 공간으로 드러난다. 본래 고해성사란 사제 앞에서 신께 죄를 고백하는 기독교 성사를 말하며 고백을 들은 사제는 신을 대신하여 죄의 용서를 선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에 정신적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작품에서는 죄의 고백 대신에 자신의 내적 고통을 호소의 장소로 주관적인 해석을 하였으며, 이러한 장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단절과 부재로 인해 허공에 메아리치듯 고독과 불안의 장소로 탈바꿈 된다.

이렇듯 작품에서 나타나는 형상은 본인의 심적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또한 주로 나타나는 기독교 이미지와 빛은 '신 = 구원' 을 나타내는 상징적으로 의미로 쓰였으며 그와 대비되는 불안으로 고통받는 자아를 한 공간에 배치시키면서 주제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적 표현을 통하여 내적 갈등으로 인한 불안을 종교로 해소 하고자 하였으며 문제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염원을 이미지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 2) 감정표현으로서의 색채

색채는 시각을 통하여 지각되며 생리적인 현상과 함께 감각을 통한 하나의 감정을 나타내는 심리적 현상이다.<sup>14)</sup> 회화에 있어서 색채는 자연 대상을 재현하는 목적 뿐 만이 아니라, 그로부터 받은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며, 어떤 생각을 직 ·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전달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서 표현되는 감각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색채는 형태보다 더욱 표현적이고 감정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 형태로 모두 전달할 수 없는 것을 전달하

---

14) 「색채학」, 김덕택, 송종율, 이선아, 전현춘 공동저, 일진사, 2007, p.126

는데 더욱 유리하다. 때문에 어떤 평면이나 공간 위에 예술가의 내적, 정신적 감정을 대신하여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작가의 감정과 내적 세계를 전달하는 표현 수단으로서의 색채는 본인의 불안한 심리를 작품에 반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작품4] 「누가 복음 3:3-6,8」에서는 검은색 선 안에 붉은색의 긴 색면의 띠가 다발을 이루어 구불거리는 곡선으로 표현되어져 있다. 이는 불안한 정서를 표현하였으며, 화면에 긴장감을 주고자 의도 한 것이었다. 이 때 강한색을 띠는 긴 터치는 색면을 형성하여 색과 선의 통합을 이루어 내고 역동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게 된다. 작품에 나타나는 붉은색과 청색의 대비는 화면에 음울한 색조로서 드러나고 이러한 구성을 통하여 전체적인 분위기를 심리적인 상황으로 유도하고자 하였다. 강렬한 색채의 사용은 정서에 직접 관여하여 나타나며, 화면 전체를 뒤덮고 있는 붉은색은 마치 이글거리는 저녁 놀, 혹은 떠오르는 태양 등으로 연상작용이 됨으로써 관람자에게 감정적 자극을 주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의미로 [작품9] 「마태복음 18:18」에 나타나는 검은색은 심리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검은색은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신비로운 색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흔히 무거움, 두려움, 죽음, 공포를 나타내는데 쓰인다. 작품에서는 색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표현되었으며, 고립되고 불안한 자아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검은색을 사용하였다. 또한 인물과 배경 전체를 뒤덮고 있는 색채는 이러한 인물의 심리적 상황에 잠식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색채는 인간의 감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작가와 감상자 모두를 아울러 정서적 부분을 자극한다. 즉 색채를 통하여 그 자체의 자율적 표현이 가능 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순수한 감정을 표현하고 인간의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이러한 감성을 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보색의 대비를 적극 활용한다. 이러한 보색은 각각의 색들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서로 보완하고 효과를 높이면서 상승작용을 통해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러한 보색은 표현주제를 부각시키고 자신의 감정상태를 드러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작품3] 「시편34:15-19」를 살펴보면 전체를 뒤덮고 있는 푸른색 화면위에 하늘과 지면의 경계선에서 태양이 떠오르듯 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내적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푸른색의 공간에서 지면으로 물드는 붉은색의 빛은 위에 언급함과 같이 구원의 상징적 표현이다. 이러한 색의 대비는 저채도 푸른색 배경위에 작품에서 주제가 되는 붉은 빛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며, 보색을 이용하여 강렬한 시각적 자극을 주면서 심리적인 상황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화면에 생동감을 주면서 역동적인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보색의 대비는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는 특징이다. 시각적으로 강렬한 색을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화면에서는 색채는 상반되는 단순한 구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단순한 색채의 구성은 작품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이미지와 내용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시각을 자극하는 강렬한 색채의 사용과 대비되는 보색의 사용은 작품의 내재되어 있는 본인의 불안의식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인 표현방법이다. 위에 언급함과 같이 색채는 형태보다 더욱 표현적이고 감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형태에서 미처 다 표현하지 못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완성도를 한층 더 끌어 올리며 표현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본인 작업에서 색채는 단순히 시각적으로 대상을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과 감정을 표출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사용되어진다. 이렇게 형성된 색채는 일반적인 대상의 형상을 주관적인 심리적 공간으로 표현되게 한다.

### Ⅲ. 결 론

예술가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모사(模寫)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내면의 정신세계를 자신만의 조형언어로 표현 하고자 한다. 이처럼 예술은 인간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며, 자기 자신을 반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에 예술가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하고 고민하게 한다. 이러한 사색은 삶을 살아가면서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자아와 마주하게 하고 자신의 삶의 전반을 돌아보게 하며 작품창작에 있어서 크나큰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하여 본인 뿐 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항상 내재되어 있는 ‘불안’이라는 특정 감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래 인간은 본성이란 없고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존재라고 규명하고 이는 불안을 야기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본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불안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고 진정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 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불안이란 감정을 예술로서 표출하고자 한 표현주의 화가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내면의식을 나타내기 위해 주관적인 색채와 형태의 왜곡이란 방법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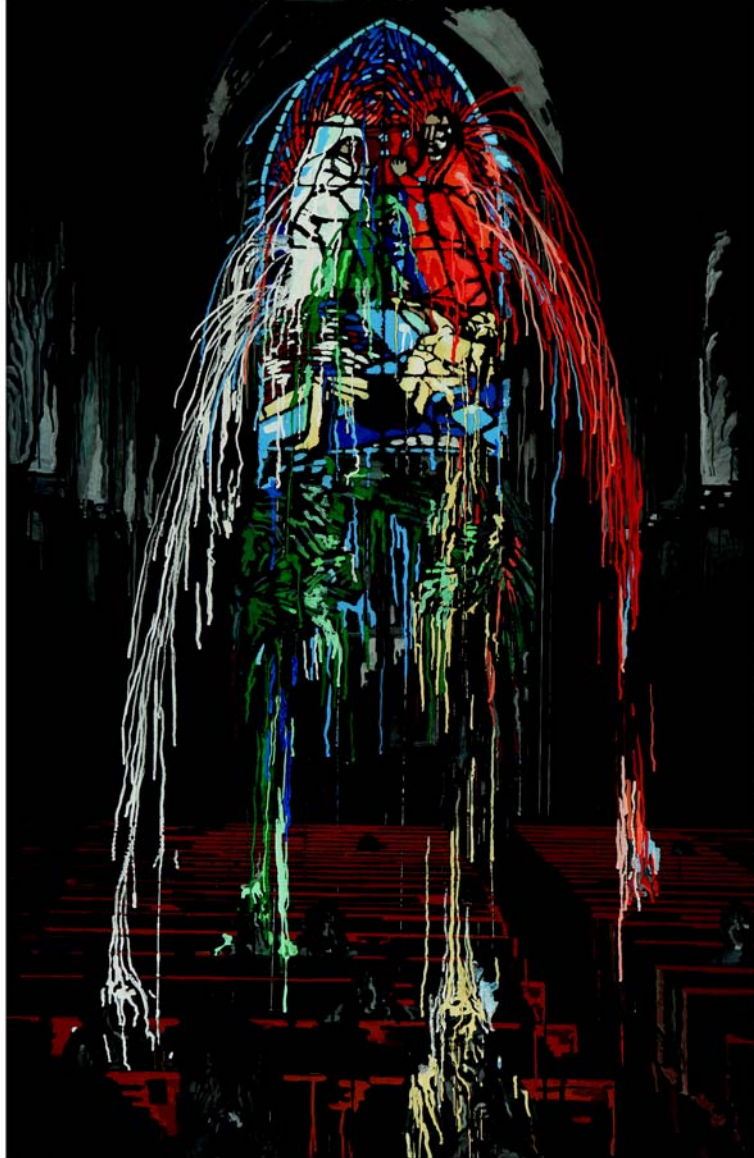
인간은 자신의 능력에 한계를 느끼고 극복이 어렵다는 것을 느낄 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자 한다. 이것이 종교의 탄생원인 중 하나이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위안을 얻고 희망을 찾고자한다. 본인의 작품에서도 불안과 좌절의 상황에서 자신보다 초월적인 존재에게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의 이미지는 이러한 자신의 내면의식을 드러내는데 매개체로 작용하며 상징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미지는 스테인드글라스, 세레, 고희성

사, 만찬의식 등으로 나타나며 이는 신을 상징하는 대상으로써 작용한다. 또한 같은 공간에 고통 받는 자아의 심상이 투영된 공간과 인물을 표현함으로써 대비를 통한 주제의 극대화를 유도하였고 이것은 자신의 내적갈등에서 벗어나 치유와 회복의 염원으로 나타나게 된다.

본인의 작품 연구는 인간의 삶이 항상 불확실하고 불안 위에 놓여 있지만 감정의 실체에 대해 탐구하고 이해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 하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사색을 통하여 작품을 제작 할 때 진솔한 자세로 임하고 보다 깊이 있는 양질의 작업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논문을 계기로 작품 뿐 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더욱 성숙되고 발전되고자 하는 바람이다.

## 작 품 해 설



Deuteronomy(신명기)32:4 장지위에 분채 198x130c

[작품 1]

작품제목 : 신명기 32:4

작품크기 : 198x13cm

작품재료 : 장지에 분채

작품년도 : 2010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하거나 고통스러운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종교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 작품의 하단에 나타나는 인물들도 이와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으며, 또한 본인의 내적 의식을 투영한 대상이기도 하다. 성당의 내부와 이러한 인물들은 회색과 검정 등 무채색을 사용하여 어두운 내면세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중앙 상단에 시각을 자극하는 색상으로 스테인드글라스 표현함으로써 주제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스테인드글라스와 이에 투과되어 들어오는 빛은 작품속에서 초월적 실재를 상징하고 사람들 머리위로 쏟아지는 형상은 고통받는 자아가 치유되고 회복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표현한 것이다.



The Psalm(시편)121:5-8 장지에 분채 162.3x130.3cm,2010

[작품 2]

작품제목 : 시편121:5-8

작품크기 : 162.3x130.3

작품재료 : 장지에 분채

작품년도 : 2010

이 작품에 나타나는 실내 내부는 자아의 폐쇄적 공간으로 나타난다. 문 밖으로 나타난 까마귀는 삶을 위협하는 외부적인 요소로 표현되고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그 방어기제로서 닫힌 공간을 연출하게 된다. 하지만 이 곳은 안락함을 주는 공간이 아니며, 오히려 고립되고 세계와 단절되면서 오는 불안한 심리를 대변하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또한 색채 또한 주로 흰색을 사용하고 물감을 흘리듯이 칠하여 이러한 내면심리를 극대화 하고자 하였다.



시편34:15-19, 260.6x324.6cm , 장지에 분채, 목탄, 2010

[작품3]

작품제목: 시편34:15-19

작품크기: 260.6x324.6cm

작품재료: 장지에 분채, 목탄

작품연도: 2010

이 작품은 예수의 도상을 중심으로 그 아래 고통 받는 자아의 상징인 인물들을 배치하였다. 이 인물들을 통하여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내면의식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극적인 대비를 나타내기 위해 예수의 형상 뒤로는 시각을 자극하는 은색 분채를 줄을 굵듯 사용하여 강조하는 반면, 그 아래 인물들은 걱정적인 물에 휩싸이는 모습을 저채도의 색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푸른색의 풍경에 물드는 붉은 빛은 신을 대변하는 빛으로 자신의 내면을 밝히는 형상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Luke(누가복음)3:3-6,8 장지에 분채 162.3x130.3cm,2010

[작품 4]

작품제목 : 누가 복음 3:3-6,8

작품크기 : 162.3x130.3cm

작품재료 : 장지에 분채, 목탄

작품연도 : 2010

이 작품은 신을 대변하는 사제에게 기독교의 대표적인 의식(儀式)인 세례를 받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통 받는 자아의 회복과 치유염원이라는 주제에 근거하여 표현하였다. 여기에서는 사제와 인물 뒤에 나타나는 배경과 물의 표현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발로 나타나는 검은색 선 안의 붉은 색면이 물결치는 듯한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본인의 불안한 내면심리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붉게 표현되어진 하늘이 물에 비춰지는 풍경을 색의 통일로 나타내면서 경계를 무너트리고 하나의 심리적 상황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마가복음 28:19, 260.6x324.6cm 장지에 분채, 2010

[작품 5]

작품제목 : 마가복음 28:19

작품크기 : 260.6x324.6cm

작품재료 : 장지에 분채

작품연도 : 2010

이 작품도 [작품 4]와 같이 세례의식을 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며, 이것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느낌을 표현 하였다. 의식을 치루는 과정에서 느꼈던 강렬한 느낌을 작업에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이것은 본인의 내면과 연결되어 구원과 치유의 의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화면에서 나타나는 풍경은 자신의 심리를 대변하는 공간이며, 형태의 경계를 조금씩 무너트리면서 물감이 흘러내리는 듯한 표현을 통하여 본인의 심리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흘러내리는 효과는 작업에서 종종 나타나는데, 이는 물감을 빠르게 칠해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연의 효과와 의도를 적절하게 조화시킴으로써 화면을 구성해 나간다. 이러한 기법은 자신의 불안한 내면심리를 표출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다.



The LORD watches over you- the LORD is your shade at your right hand  
the sun will not harm you by day, nor the moon by night.  
The LORD will watch over your coming and going both now and forevermore.

여호와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The Psalm(시편)121:5-8 장지에 분채 130.3x162.3cm,2010

[작품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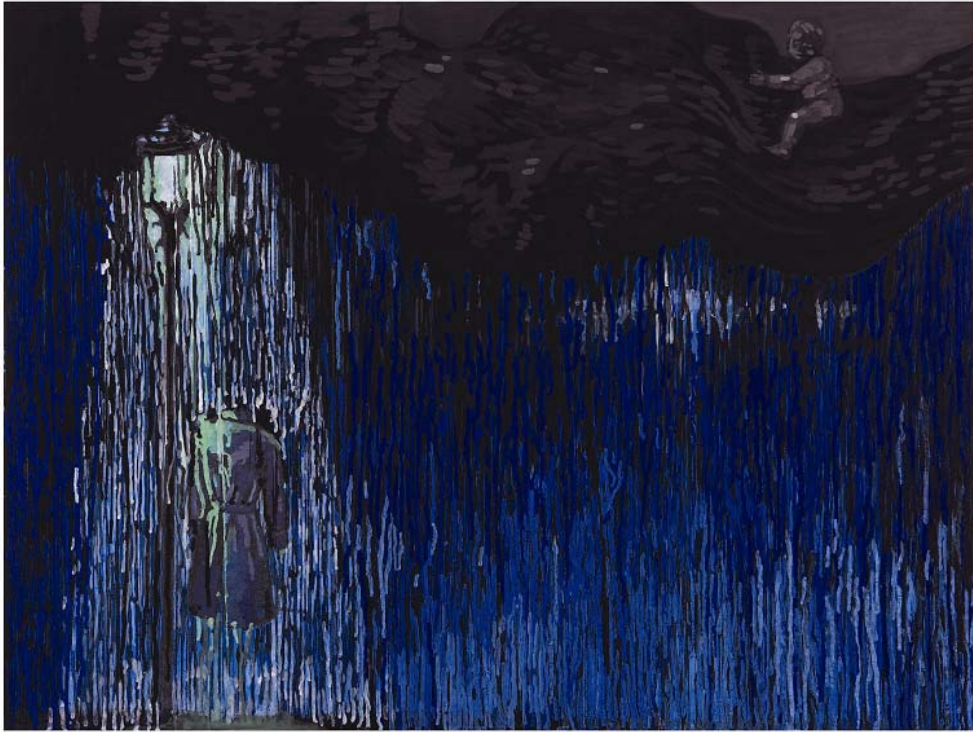
작품제목 : 시편121:5-8

작품크기 : 130.3x162.3cm

작품재료 : 장지에 분채

작품연도 : 2010

중앙에 위치한 검은 먹구름이 드리운 집은 자신의 내면의식을 대변하는 대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집은 이중적인 의미로 화면에 나타난다. 본래 ‘집’이란 본래 가족에게는 열려 있지만 남에게는 배타적인 공간이다. 그래서 집은 친숙함을 뜻하는가 하면, 깊숙이 감춰진 비밀스러운 것을 나타낸다. 이렇듯 작품에 표현된 집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공통과 내면을 가리키는 것이다. 집을 향해 일렁이는 구름과 하늘, 그 주의를 둘러싼 숲의 흘러 내리는 듯한 표현 또한 이러한 심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The Psalm(시편)23:1-4 장지에 분채 96.8x130cm,2010

[작품 7]

작품제목 : 시편23:1-4

작품크기 : 96x130cm

작품재료 : 장지에 분채

작품연도 : 2010

가로등 아래 비를 맞으며 서있는 모습을 빗대어 고통받는 자아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화면 전체에 물감을 흘리듯이 표현한 비는 불안에 잠식당한 내면의 풍경으로 나타난다. 우산을 쓰지도 않고 그 비를 온 몸으로 맞고 있는 화면 속 인물은 이러한 고통을 피 할 수도, 받아들이기도 힘든 갈등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에 흐릿하게 채색되어진 밝은 부분을 응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타나지만 너무 멀어 닿을 수 없음을 표현 하였다.



고린도전서11:23-26, 91.5x73cm, 장지에 분채, 2010

[작품 8]

작품제목 : 고린도전서11:23-26

작품크기 : 91.5x73cm

작품재료 : 장지에 분채

작품연도 : 2010

예수의 형상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자리잡고 있는 성배는 기독교의 전례중 하나인 성찬식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포도주를 나누어 먹음으로 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가 자신을 희생한 것을 기억하고자 하는 의식이다. 작품을 살펴보면 양 측면에는 물이 담긴 잔과 포도주가 담긴 잔을 발견 할 수 있다. 이는 성서를 근거로 하여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 시킨 기적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기적을 행하는 신의 능력을 이미지화시킴으로써 인간이 극복 할 수 없는 문제 해결을 초월적 존재에게 의지하자 한 내면의식을 표현하였다.



Matthew(마태복음)18:18 장지에 분채 91x117cm,2010

[작품 9]

작품제목 : 마태복음18:18

작품크기 : 91x117cm

작품재료 : 장지에 분채

작품연도 : 2010

이 작품은 사제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신에게 고백하는 고해성사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여기서는 주관적인 해석에 의하여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는 장소로 환원되어 진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한 줌의 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밀실로 나타나며, 이것을 검은색과 회색 등 무채색으로 표현하여 어두운 내면세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화면을 살펴보면 사제가 있어야 하는 공간에 아무도 없고 자아를 대변하는 인물만이 홀로 남겨져 있다.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공간에서 신 혹은 사제의 부재로 관계가 단절되고 그로인해 자아는 고독해지고 불안에 떨게 되는 것이다. 이 작품은 구원을 상징하는 빛이 단절된 혼란만이 존재하는 공간을 내면의식을 근거하여 나타내고자 하였다.

## 참 고 도 판



[도판1] 키르히너, 거리의 여자들, Oil on canvas, 131x158cm 1913



[도판2] 에밀 놀데, 오트만의 바다,  
Oil on canvas, 30x35, 1910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M. Heidegger,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이기상 역, 서울 서광사, 1995
- 볼프 하르트 헝크만, 「미학사전」, 김수진역, 도서출판 애경, 1999
- 「독일의 20세기 형상회화」, 김재원 저, 한국 학술정보, 2007
- 수잔. K. 행거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승훈 역, 서울:고려원, 1982
- 「색채학」, 김덕택, 송종율, 이선아, 전현춘 공동저, 일진사, 2000

### <학위논문>

- 시종숙, 「자아의 실존적 사유를 통한 내면표현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의영, 「독일 표현주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2

# ABSTRACT

## A study on the formativeness that appears in internal consciousness

- Centering Around My Work -

Park, Eun Hye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All of us, living our lives, must have had a question about our own existence at least once. But since there is not a clear answer to it, we come to have a lot of thoughts and as a result get confused. Like this, to understand oneself is very difficult, but it is a very important matter in our lives, which evoke curiosity and desire both of which are indispensable to man. In addition, people form their egos by understanding and acknowledging themselves in the relations with others. However, in the course of recognizing and examining themselves, they find them incomplete beings, encountering uneasiness. Most of all men have this kind of emotion, which incessantly pops up in their lives and surroundings to stimulate consciousnes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ocedure and meaning of describing

the emotion "Uneasiness" lying in not only my life but also all the human beings' in the form of a visual image in my own language through my works. And I also want to show the flow of consciousness that the expression of this image gets out of the inner conflict to be connected to the wish for cure and recovery.

Arts have functioned as a means to express the experience of life and a variety of emotions coming from that experience and also have been formed and expressed as a language or an intrinsic way of expression through artists' inner awareness. The visual image which is expressed in this way awakens the men's inherent possibilities and sheds new light on their lives so that those can get a new value.

In my works, the expression of inner consciousness takes up a very important part, for the shapes, colors and spaces on the pictures are for emotion and awareness. I tried to show that the sacred images shown as the expression of awareness stand for the God or the symbol of redemption. Also I wanted to emphasize the subject with the contrast by arranging in one space the landscape and figures projecting self-conflicts. This kind of symbolism plays the role of substituting aggressively the consciousness and emotion into the subject and externalizing this consciousness to pass on the inner world effectively. Furthermore, I, with the observation of subjects, studied the colors which are the expressing elements important for expressing the subjective emotion and showing my thoughts directly and indirectly, and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colors lying in my works.

In this dissertation, I, on the basis of my unstable consciousness, checked how the formative expression by the images of religion was done. And with this as a foundation, I looked back on myself to establish my values in a right way for the line of my future works.